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나의 언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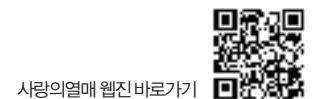
권한솔 작가



권한솔, '달콤한 낮잠'

2023
03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소개해주세요



●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게 현판을 단 곳이 4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쉽게 착한가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사랑의열매>에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널리 알려주세요. 음식점은 물론 헤어 숍, 옷 가게, 서점, 학원 등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한 곳이라면 어디든 대환영입니다. 단골 가게가 알고 보면 착한가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가게에 걸려 있는 착한가게 현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참여방법

- 1 착한가게 현판과 가게 내부, 또는 상품(음식) 사진을 찍는다.
- 2 사진과 함께 상호명을 적어 매달 20일까지 사랑의열매에 이메일을 보낸다.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착한가게를 소개해준 분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04 희망2023나눔캠페인
62일간 이어진 나눔 여정 마무리

06 표지 이야기
타고난 재능에 상상을 더해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권한솔 작가

08 나눔 여행
봄은, 빛꽃이어라

12 매슬랭
양갈비의 맛, 그 확산 하나로
광화문양갈비

16 그린 열매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대나무 칫솔

18 이웃 생활 백서
일상생활 속 층간 소음 줄이는 법

20 모두의 나눔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성들을 위하여

26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여성 고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
뷰티플 라이프

30 내 인생의 한마디
제주 최초 모자(母子) 아너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이사·송현울 총괄본부장

34 소중한 진심
작품 수익금으로 이웃 돕기 실천한
최명선 씨

36 나눔 컨퍼런스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38 기부자맞춤기금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1호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광주·전북·전남·대전·충북·충남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권한솔, '달콤한 낮잠'
acrylic on canvas
60.6×72.7cm, 2020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3월 / 통권 19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62일간 이어진 나눔 여정 마무리

“귀한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힙니다”

지난 2월 3일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금액 4,444억 원,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 110도를 최종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글이선희 사진김기남, 사랑의열매



1



2



3

전국에서 보내온 성원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지난 1월 31일 6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만큼 나눔온도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온 국민의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캠페인 47일 차인 1월 16일 102.4도를 기록하며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 이번 캠페인 나눔온도는 최종 110도를 기록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성원이 이어졌다. 뜻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2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탤런트 채시라 등이 참석해 대국민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캠페인의 막을 내렸다.

- 1 폐막식에서 선보인 대국민 감사 메시지
- 2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 3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탤런트 채시라



“고사리손으로 들고 온 저금통 등 많은
기부금이 모여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힐 것
같습니다. 귀한 마음이 모인 성금인 만큼
철저히 아껴 쓰고, 합리적으로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법인, 개인 등 활발한 기부 참여

희망2023나눔캠페인 총모금액 4,444억 원 중 개인 기부금은 1,071억 원(24.1%), 법인 기부금은 3,373억 원(75.9%)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최종 모금액 4,279억 원보다 16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신한·우리금융·하나금융그룹 등이 각각 30억 원씩 기부금을 증액하는 등 금융계의 기부금 증액과 현대중공업·한진·20억 원 기부 재계, 우미희망재단의 8억 원 신규 기부 등이 법인 기부금을 견인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지역 순회 모금 등이 재개됨에 따라 전국 지회의 지역 연계 모금으로 1,123억 원이 모여 전년보다 50억 원이 증가했다. 이벤트 모금 및 QR코드 기부 참여 등 캠페인 기간 일시 기부도 전년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246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 모인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4대 지원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

Check!

굿즈 소름은 계속됩니다, 쪽~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사랑의온도탑과 함께 설치한 사랑의열매 굿즈 소름. 캠페인 종료 이후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 내 나눔문화센터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으로 이곳에서 방문객에게 귀엽고 다양한 사랑의열매 굿즈를 소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나의 언어예요”

권한솔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화가다. 호기심 가득한 그의 작품 세계는 언제나 보는 이에 많은 이야기를 던진다. 그것이 바로 작가의 언어이므로! 글강은진 사진조혜원



작품 통한 교감 돋보여

봄 햇살에 기분이 좋아지는 3월, <사랑의열매> 표지는 권한솔 작가의 '달콤한 낮잠'이 장식했다. 따뜻한 곳과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창가에 매달린 화분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제멋처럼 달콤한 낮잠에 빠져 있다. 어디선가 솔솔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림은 보는 이에게도 달콤한 휴식을 선사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묘의 일상을 담은 이 작품은 작가 특유의 풍부한 감수성과 섬세한 표현력이 잘 드러나 있다. 권한솔 작가는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애정이 깊다. 이런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권한솔 작가의 작품 소재는 다양하다.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장준석 소장은

“권한솔 작가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색상과 형상으로 구성된 조형성, 그림에 대한 미적 호기심으로 관객에게 훌륭한 교감을 선물한다”고 평했다.

지독한 노력과

권한솔 작가는 돌 무렵 뜻하지 않은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고, 이후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미술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의 어머니 김경희 씨는 “하도 그림만 그려 말할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장애아를 키우는 여느 부모처럼 아들의 재능을 반신반의했다. 수많은 전시를 하고, 상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그러다 몇 년 전 경기도 부천시 축제의 일환으로 지하철 신중동역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민들이 권한솔 작가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쓴 방명록의 글을 보고서야 아들을 인정했다. 그만큼 권한솔 작가의 작품에는 따뜻한 위로가 있다. 또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림에 몰두하며 보낸다고 알려졌다. 세상과 소통하는 권한솔 작가만의 방식이다. 매일매일 붓으로 말을 거는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 수다쟁이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권한솔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

작가 주요 profile

- 2023.01 • 한국미술진흥원 특별기획전 대상
- 2022.11 • 드림어빌리티전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1,2관)
- 2022.11 • AmazingTalent 공모전 우수상
- 2022.09 • 제6회 권한솔 개인전, 아리수 갤러리
- 2022.09 • 2022 파라라이 아트페스티벌, 최우수작가상
- 2022.06 •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fair, art3f Monaco
- 2022.06 • SPIRIT OF ART EXHIBITION, Belgium LOVE2ARTS Gallery
- 2022.02 • LA ART SHOW 참여, LA Convention Center
- 2022.02 • ACEP2022 한국발달장애아티스트 특별초대전 붓으로들을게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 2021.11 • 세계평화미술대전 대상 (서울특별시장상)

타고난 재능에 상상을 더해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권한솔 작가





꽃비 내리는 풍경을 찾아

봄은, 벚꽃이어라

파릇한 새싹을 틔우기도 전에 새하얀
꽃봉오리부터 활짝 피우는 벚나무!
반가운 봄의 전령이다. 눈이 부시도록
화사한 어느 봄날의 초대장, 벚꽃이어라.

글강은진 사진한국관광공사 이정훈

꿈길인가, 꽃길인가 남해 왕지벚꽃길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흐드러진
연분홍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볼을 한
번 꼬집고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이보다 환상적인 풍경이 또 있을까!
봄이면 한국의 아름다운 드라이브
명소로 손꼽히는 남해 왕지벚꽃길.
남해대교를 지나 충무공 이순신
사당인 총렬사가 있는 노량삼거리에서
문의리까지 약 5km 구간에 무려 1,0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다. 봄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그림
같은 꽃비가 쏟아져 내린다. 울창한 벚꽃
터널을 만끽하고 싶다면 오른쪽 산길로
올라가고, 남해대교와 벚꽃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해안도로를
따라간다. 바다와 어우러진 벚꽃을
보려면 해안을 따라 달리면 된다.

-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 ☎ 남해관광 콜센터 055-863-4025

36만 그루 벚나무의 향연

진해군항제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이면 진해는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인다. 장장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만개하면 벚꽃 잔치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진해군항제가 시작된다. 여좌천, 경화역, 안민고개, 제황산공원,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등이 대표적 벚꽃 스팟이다. 특히 '로망스다리'로 알려진 여좌천 1.5km 구간은 개천 양옆으로 하늘을 드리운 황홀한 벚꽃 터널이 유명하다. 새하얀 꽃비가 내리는 경화역 철길과 환상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안민고개 십리벚꽃길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217(여좌천 로망스다리) ☎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055-546-4310



가장 먼저 봄이 오는

제주

크고 화려한 왕벚나무의 자생지 제주를 빼고 어찌 벚꽃을 논하겠는가. 분홍 벚꽃은 물론 노란 유채꽃까지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의 제주는 봄꽃 여행 1번지라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진입로, 삼성혈, 산지천 벚꽃 군락, 예래생태공원, 왕벚나무 자생지 등이 대표적인 벚꽃 명소다. 특히 제주대학교사거리부터 1km 정도 이어진 도로는 제주도 현지인도 손꼽는 최고의 벚꽃 스팟이다. 봄별을 즐기며 걷는 산책도 좋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드라이브도 좋다. 이 시기 제주대 진입로를 지나는 버스의 맨 앞자리는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만큼 VIP석으로 등극한다. 농구대와 어우러져 흡사 만화의 한 컷 같은 산지천 벚꽃 군락과 서귀포의 숨은 벚꽃 명소 예래생태공원 등도 색다른 풍광을 뽐내는 곳이니 같이 둘러보자.

📍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 제주관광정보센터 064-740-6000

화려한 야경이 더해진 봄밤의 벚꽃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여의도 윤중로와 함께 서울 벚꽃 명소의 양대 산맥이다. 석촌호수를 따라 활짝 피어난 벚꽃은 화려한 도심에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밤이면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의 불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봄밤의 풍경이 펼쳐진다.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통 예술 공연, 음악회 등이 열려 설레는 봄의 흥취를 더한다. 호수 변을 따라 낫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아름다운 서울의 봄을 만끽할 수 있다.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148(잠실동)
☎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02-2147-2800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는 벚꽃

마이산 벚꽃길

마이산 벚꽃길은 진안고원의 독특한 기후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핀다.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질 때쯤, 개화를 시작할 정도다. 뒤늦은 봄꽃 여행객들에게는 고마운 보루인 썸! 마이산 남부 진입로에 있는 이산묘에서 탐사까지 2.5km 벚꽃 터널이 분홍빛 장관을 이루고, 산사를 향해 난 길이 운치를 더한다. 북부 주차장 수변 공원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호수에 비친 기세 좋게 솟은 바위산과 새하얀 벚꽃이 어우러져 그림이 따로 없다. 🌸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 063-430-2114



양갈비의 맛, 그 확산 하나로 광화문양갈비

중동 건설 현장을 다녀온 건설사 직원이나 그 맛을 알고 찾던 시절부터 양고기를 선보인, 진짜 원조집! '광화문양갈비' 이야기.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광화문양갈비 내부 전경. 광화문 근처 직장인의 회식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양고기에 대한 확산

양꼬치부터 양갈비까지 이제 양고기는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음식이다. “양꼬치엔 칭다오”란 유행어가 있을 정도니까. 하지만 십수 년 전만 해도 양고기는 꽤 낯선 음식이었다. 파는 식당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양고기를 누가 먹느냐고 단언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집안 어른들이

외식업에 많이 종사하세요. 저도 외식업을 한다고 하니, 조언해주신다고 찾아오셔서 맛은 있는데 이 낯선 걸 누가 사 먹겠느냐며 걱정하셨죠. 진짜.(웃음)” ‘광화문양갈비’ 김철환 대표는 오픈 당시를 떠올리며 웃었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근처에 자리 잡은 광화문양갈비는 양고기를 아는 사람들에게겐 원조집 못지않은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양고기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십수 년째 자리를 지키며 질 좋은 양갈비를 선보여왔다. 중동 건설 현장을 다녀온 건설사 직원들이나 그 맛을 알고 알음알음 찾아오던 시절이었다.

“양꼬치란 말조차 없던 시기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양고기를 맛보았는데, 첫 느낌이 강렬했어요. 그 순간 이걸 내가 해야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양고기로 지금까지 왔네요. 한때는 저희 집이 우리나라 건설사 회식 일번지였어요.”

엄격한 고기 기준, 입소문 자자

광화문양갈비는 상호처럼 양갈비 전문점이다. 지금은 알등심, 양전골 같은



양고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철학을 지키는 광화문양갈비 김철환 대표



오랫동안 착한가게 정기 기부를 이어온 김철환 대표는 나눔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양고기 메뉴가 추가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메뉴가 양갈비 하나였다. 외식업은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 중 하나지만, 김철환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성이다. 그런 그의 철학이 양고기라는 외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잘하는 걸 정말 잘해서 손님께 드리자, 그리고 좋은 걸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운영해요. 그러기 위해서 양고기라는 한길을 뺏죠.”

광화문양갈비는 생후 6개월 전후의 뉴질랜드산 양고기만 취급한다. 호주산이나 미국산

등 여러 업체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고기 납품을 제안했지만, 김철환 대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 오직 뉴질랜드산 양고기뿐이다. 조금 더 비싼 건 문제 되지 않는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급 채널을 바꾼 적이 없다.

“양고기를 처음 맛보시는 분들은 냄새가 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분홍빛이 살짝 돌 정도로 익혀 조금만 찍어서 맛보라고 권해요. 그만큼 제 양고기에 자신이 있거든요. 음식은 절대 계산기 두드려가며 선택하면 안 돼요.”

김철환 대표의 음식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기에 광화문양갈비의 명성을 만든 비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숙성이다. 뉴질랜드에서 공급받은 양고기는 2~3일간 숙성을 거치는데, 여기에 부드러운 육질의 비밀이 숨어 있다. 물론 공개는 여기까지다.

나눔도 양갈비만큼이나 꾸준하게

광화문양갈비의 양고기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담백한 양안심으로 시작해 고소한 양갈비를 맛본 후, 양전골 육수로 끓인 후식 라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오로지 양갈비만 고집하거나 시원한 양전골 국물을 유난히 즐기는 단골도 있다. 초창기 건설사 단골들의 영향일까? 광화문양갈비는 ‘올리브 맛집’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상차림을 보면 다른 업체와 달리 잘 구운 토르티야와 올리브가 포함된다. 머스터드 소스나 쿠민 향신료에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토르티야에 양고기와 올리브 및 양파를 넣어 싸 먹으면 별미다. 실제 중동의 식당에 온 듯 이국적 맛을 즐길 수 있다. 김철환 대표는 앞으로도 양고기라는 한길을 걸어갈 생각이다. 목표가 있다면 광화문양갈비 2호점, 3호점을 내면서 말이다.

광화문양갈비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8 광안빌딩 1층
- ☎ 02-737-7375
- 🕒 매일 11:00~22:30(연중무휴)
- 🍽 양갈비(200g) 1만 9,800원, 알등심(150g) 2만 원

“착한가게에 가입은 했지만, 큰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니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대단한 이벤트보다 이렇게 매일, 매달 조금씩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꾸준해요.”

김철환 대표는 언제 착한가게에 가입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양갈비로 한길을 걸어온 것처럼 말이다. 김철환 대표를 보면 음식도 나눔도 변함없을 거라는 믿음이 절로 든다. 🍀

광화문양갈비의 양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플라스틱 칫솔 분해에만 500년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대나무 칫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세 번씩 사용하면서도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칫솔이다. 평생 써온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로 바꿔봤다.

글 이선희 사진 김가남 촬영 협조 알맹상점 리스태이션 서울역점



최초의 칫솔, 아직도 존재

플라스틱 칫솔은 193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 중 하나다. 국내외 치과 의사들은 칫솔을 3개월 주기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1년에 4개, 평생 주기로 보면 한 사람이 수백 개를 쓰고 버리는 셈이다.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는 현실이지만,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칫솔은 재활용하기 어렵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된 플라스틱 칫솔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 걸리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분해된 칫솔은 단 한 개도 없다는 뜻이다. 1930년대 최초로 만든 플라스틱 칫솔이 지금도 존재하며, 향후 400여 년을 더 쓰레기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자원, 대나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라스틱 칫솔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바로 대나무 칫솔이다. 대나무는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듯 성장 속도가 빠르다. 게다가 살충제나 화학비료 없이



햇빛과 물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란다. 일부를 잘라 사용해도 빠르게 다시 자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꼽힌다. 또 매립 시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1 플라스틱 칫솔 캡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칫솔 캡
2 대나무 칫솔과 함께 사용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교체 치약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

대나무 칫솔의 칫솔대는 대나무로 만들지만, 모는 나일론이다. 아직 모까지 모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칫솔은 시중에 없다. 친환경 생활용품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숍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만, 보관 방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에 젖은 채로 방치하면 변색은 물론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칫솔 전체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칫솔 걸이 등에 걸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기자 3인의 생생 체험기

제품 대나무 칫솔(무포장 990원, 종이 포장 1,500원) | 구입처 알맹상점 리스태이션 서울역점 | 사용 기간 30일

- **N 기자** 미세모 선호, 특정 브랜드 제품에 정착 "처음 대나무 칫솔로 양치질했을 때 대나무 질감이 워낙 낯설어 당황스러웠어요. 일주일 정도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칫솔과 번갈아 사용했더니 이후에는 대나무 칫솔에 완벽히 적응해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양치질 후에는 개운한 느낌이 오래 남아 좋았지만, 건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조금 귀찮았어요."
- **K 기자** 강한 칫솔모 선호 "처음에는 대나무 칫솔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어요.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 나무 대가 칫솔모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주 좋았고, 그 덕분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 닦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무 질감이 많이 느껴졌지만, 한 번 사용해 보고 바로 적응했어요. 너무 만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나무 칫솔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 **B 기자** 칫솔 교체 주기 짧은 편 "치아 교정을 해서 세정력이 뛰어난 제품을 좋아해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바로 교체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부담스러워요. 대나무 칫솔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칫솔 헤드 크기도 적당하고, 칫솔모도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특히 세정력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부담 없는 가격까지. 오랜만에 가성비 높은 제품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소리에 고통받는 이웃들

일상생활 속 층간 소음 줄이는 법

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을 주간(06~22시)에는 39dB, 야간(22~06시)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한 것.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이웃의 불편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출처: 선희 참고자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참고 도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차상근 저, 황소북스)

* dB(데시벨)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밀창 3cm 이상 두툼한 실내화 착용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화(두께 1~3cm)를 신었을 때 약 3~6dB(A)의 층간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층간 소음 저감량은 실내화 두께가 두꺼울수록 대부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실내화는 밀창 3cm 이상 두툼한 제품을 선택하되, 너무 딱딱한 소재는 피한다. 또 집에서 실내화 착용을 습관화하고, 실내화를 바닥에 끌지 않도록 조심한다.

야간에는 특별히 더 주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야간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소 등 소음이 발생하는 가사일, 망치질 등 내부 수리,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음향 재생기 사용, 운동기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늦은 밤에는 샤워와 설거지도 최대한 피한다.

층간 소음 방지 매트 두께는 5cm 이상

층간 소음 방지 매트로 확실한 소음 저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매트는 너무 얇은 것은 피하고, 두께가 5cm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하며, 소음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에 간다. 특히 통행이 잦은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 안방과 부엌 사이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매트를 깔 후에는 아랫집 이웃과 함께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매트를 깔아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뛰거나 걸을 때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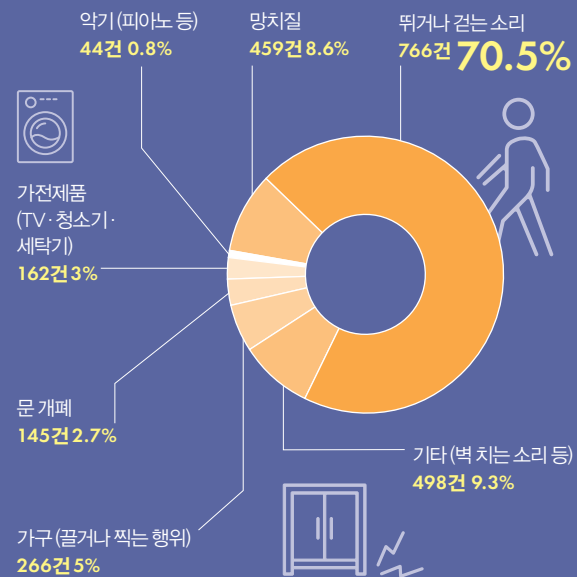
문제 발생 시 대면하기보다 중재 요청

층간 소음 발생 세대에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면, 자칫 감정 대립이 심해져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기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 사무소나 입주인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편이 낫다.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서 상담을 받거나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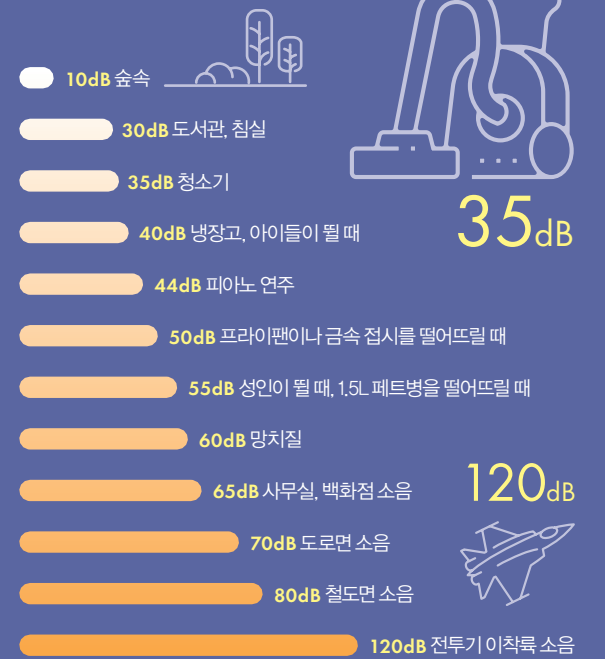


층간 소음 주요 발생 원인 1위 쿵쿵쿵 ‘발망치’

(2022년 1~9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 접수 현황)



층간 소음 비교표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취약 계층 여성의 자립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꿈을 이루고자 당당히 세상에 발을 내딛는 여성들이 있다. 사랑의열매는 그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손그림



한부모 북한이탈여성 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적관계 증진 지원 사업 엄마의 행복



1, 2 남북 여성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퀼트 작품 3 손뜨개 교실에 참여한 여성들 4 공동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류하는 남북 여성들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지만, 기술 부재와 경력 단절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다. 이는 그들의 정서, 인간관계, 건강, 경제 문제 등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여성을 찾아내 의료비·생계비·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했다. 또 퀼트와 손뜨개 교실을 운영해 남북 여성들이 공동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MINI INTERVIEW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최재경 팀장

Q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개인 정보 보호 강화로 저희가 직접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여성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직접 복지관을 찾아와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센터 및 지역 내 복지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큼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급식조리사양성과정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수료식 모습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홈앤쇼핑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해 사업을 진행했다. 조사 시 조리사 양성과정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았고,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익숙한 직종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조리직 일자리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을 기획했다. 단순히 급식 조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까지 진행해 비교적 안정적인 단체 급식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코칭 강의와 토론 수업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직접 담근 김치와 만든 밑반찬을 1인 가구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사회 환원 프로그램,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등 취업 대비 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약 계층 여성 32명 중 취업률은 71.8%(23명),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률은 50%(16명)를 달성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 중인 참여자들

MINI INTERVIEW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김선경 팀장

- Q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요?** 과정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은 물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50대 참여자는 여섯 번에 걸친 시도 끝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저에게 전화하셔서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 Q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독려합니다. 무엇보다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취약 계층 여성이 도시락 나눔을 통해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참여자들은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Q **홈앤쇼핑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원 덕분에 50일간의 조리 전문교육과 재료 전액 지원, 자격증 검정료 지원, 취업 상담사의 취업 연계와 취업 떡 선물, 도시락 나눔까지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취약 계층 여성과 1인 가구 어르신에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케냐카바넷여성 한부모가정을 위한봉제 교육사업



1 참여자들이 만든 옷을 선보이는 패션쇼 날에는 바링고주 주지사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2 봉제 실무 교육을 받는 모습 3 자신의 옷과 아이 옷을 직접 만든 참여자

월드투게더 케냐 지부는 카바넷 지역에서 왕왕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머니 교실을 진행하던 중 참여자들이 먼저 소득 창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던 중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참여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여성 한부모 가장 40명에게 국가 공인 봉제 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봉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경제적·물리적 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자녀놀이키트를 제공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직업·심리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해 자립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왔다.



5개월간 봉제 교육을 마친 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 패션쇼

MINI INTERVIEW



월드투게더 이보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Q 다양한 분야 중 봉제 교육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지 특성상 여성들이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되 기초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봉제 교육은 단기간에 기술 습득이 가능하고, 마을에 옷을 수선하는 가게가 없어 수료 후 작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택했습니다.
- Q 여성 중에서도 특히 여성 한부모 가장을 사업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은 보통 중·고등학생 때 임신과 출산을 해 대부분 20대 초반~30대 초반입니다. 조기 임신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사회에서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 Q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면? 참여자 중 일부는 취업·창업에 성공했고, 일부는 창업을 위한 기초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 성과 외에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꾸는 등 그들 삶의 방향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Q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사업은 카바넷 지역 여성 한부모 가장의 꿈을 이루어주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참여자들이 봉제 교육 후 본인 옷과 아이 옷을 만들어 패션쇼까지 진행했어요. 단순히 봉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가 자신과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한 아름다운 삶, 뷰티풀 라이프

아내, 엄마,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당당한 직업인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도전, 뷰티풀 라이프.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1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직업을 다양하게 지원해 호평받는 뷰티풀 라이프. 사진은 베이킹 수업
2 뷰티풀 라이프는 특수 직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헤어·뷰티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2

여성의 삶을 이해한 프로그램

과거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다. 20대 후반 남녀의 경우, 2016년 이후 성별 고용률 격차에서 역전 현상마저 나타났을 정도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상황은 완전 다르다.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현격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사회 활동뿐 아니라 경력까지 단절되는 여성의 생애 주기 과업에서 비롯한다. 계속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면 결혼이나 출산 등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뿐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저소득 취약 계층 여성이라면 일반 경력 단절 여성이 지니는 사회 재진입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 등 심리적 요인에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성에겐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삶을 잘 이해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바로 '뷰티풀 라이프'다.

현장 반응 좋은 맞춤형 서비스

2016년부터 시작한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 사업은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여성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다. 사랑의열매와 아모레퍼시픽이 자립을 희망하는 취약 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까지 지원한다. 뷰티풀

라이프는 안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용 취약 계층 여성을 위한 성공적 고용 복지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 뷰티풀 라이프는 구직 설계를 위한 심층 상담, 심리 역량 강화, 직무별 직업 기술 훈련, 현장 실무 경험, 구직 활동 등 총 7단계 서비스를 진행한다. 특히 심층 상담과 현장 실습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여성 고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젝트



(왼쪽부터)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정슬기 사회복지사와 바리스타 현장 실습 중인 교육생 강지혜 씨, 사회복지사 인턴십 과정 중인 최지선 씨

1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 실습
2 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1

지점이다. 뷰티풀 라이프는 특정 직업군이나 지원 자격 등을 두지 않고, 심층 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직업이라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대한 지원한다. 헤어 디자이너 등 특수 직군부터 웹 디자인, 영상 편집, 바리스타, 한식 조리사, 요양보호사 같은 일반 직군에 이르기까지 직업군의 스펙트럼이 넓은 이유다. 또 그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해 교육을 완전히 이수하도록 돕는다. 금융 컨설팅, 의료 지원, 미취학 아동·저학년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풍부한 인턴십 기회가 뷰티풀 라이프만의 강점이다.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 활동이 여전히 자격증 취득 및 직무 훈련 중심이다 보니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자립 지원엔 한계가 있었다. 뷰티풀 라이프는 참여자가 구직에 성공하도록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업체 역시 구인·구직 미스 매칭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검증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또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거쳐 취업 성공 시 뷰티풀 라이프는 고용 유지 및 경력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상담, 사후 검사 등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여성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맞춤형 서비스는 80% 이상의 높은 프로그램 수료율의 요인이기도 하다. 뷰티풀 라이프는 취업 준비를 원하는 20~50세의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여성이라면 소정의 상담을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 우대 조건은 미혼모와 한부모 여성 가장 등이다. ♡



2

참여자 코멘트로 만나는 My Beautiful Life

“막연하던 바리스타의 꿈, 현장 실습까지 나오니 부쩍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 20대 K 씨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으니 예전 감각이 되살아났네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내게 된 게 가장 기뻐요.” - 30대 재한 외국인 J 씨

“40대 중반에 퇴사한 후, 방향이 길었어요. 그때 뷰티풀 라이프를 통해 심리 검사와 병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 50대 A 씨

SPECIAL INTERVIEW

“획일화에서 탈피,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 성공률 높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정슬기 사회복지사



올해로 사업 7년 차를 맞는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전엔 30~40대를 중심으로 50대도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즘은 20대 청년층의 참여율이 대폭 증가했다.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실감한다. 또 1인 가구, 미혼모가구가 증가하면서 아이돌봄뿐 아니라 어르신 돌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단순 직업교육이 아닌, 육아 돌봄부터 심리 치료까지 섬세한 서비스가 돋보인다. 여성 취업은 보다 복잡하다. 우선 출산과 육아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취업이 절실한데도 몸이 묶이는 경우가 많다. 또 자격증은 있는데 경력이 없거나, 오랜 경력 단절로 이력서조차 쓰기 힘들어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직업교육은 엄두도 못 내며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획일화된 직업교육이나 취업 알선보다 참여자에 맞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뷰티풀 라이프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여성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직업교육은 지원 자격이나 직업군이 정해져 있어 신청 단계부터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뷰티풀 라이프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1차적으로 먼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라면 스스로 이유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함으로써 포기가 아닌 또다른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주 최초 모자(母子)아너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이사·
송현울 총괄본부장



“나눔은 늙어 빠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이사와 송현울 총괄본부장을 만나러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자(母子)의 따뜻하고 밝은 나눔 이야기를 예상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친 후 가슴에는 묵직한 감동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걱정이 됐다. 이들이 지나온 나눔의 역사는 너무나 깊고, 그것을 모두 담기에 지면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글이선희 사진이승재

장학금 50만 원의 의미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송현울 총괄본부장이 고등학생 때였다. 학교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비가 밀렸다면 어느 선생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 당시 김순희 대표가 큰 빛을 지고 있던 터라 밀려드는 빛 독촉 전화에 유선 전화기 코드를 뽑아놓았을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다.

“하루는 교내 방송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채 갔더니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곧장 선생님께 가서 저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교내 농구부 응원단장도 맡고 있고, 방송반 활동도 열심히 하니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밀린 버스비 때문에 혼나는 그를 보고, 선생님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것. 송 본부장이 장학금 50만 원을 받아 왔을 때 김 대표는 아들에

게 미안한 마음과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한 가지를 다짐했다. 엄마가 꼭 두 배로 갚겠노라고 말이다. 그리고 4년 뒤, 김 대표는 여전히 빛에 허덕이면서도 일당 3만 5,000원을 차곡차곡 모아 제주도교육청에 100만 원을 기부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더 큰 빛이 있었지만, 받은 장학금을 갚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김 대표는 아들에게 지나가듯 말했다.

“그때 받은 50만 원, 엄마가 곱절로 갚았어.”

암보험금을 기부한 까닭

김 대표는 빛을 청산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몸을 사리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부터 현장에서 일을 배운 송 본부장이 군대 제대 후 본격적으로 김 대표와 함께 사업에 매진하며 오늘날 아웃소싱 전문 회사 (주)오현개발로 키워냈다. 회사가 자리 잡기까지 인건비를 아끼

려고 들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등 그간의 고생담을 이야기하자면 하룻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다. 이제 한시름 덜었다 싶을 때 김 대표의 건강에 이상이 감지됐다.

“2016년에 암을 진단받으면서 보험금 2,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이 보험금이 없어도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고,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2,0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제주 사랑의 열매에 갔어요. 기부하려고요.”

그렇게 김순희 대표는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86호 회원이 되었다. 보험금 기부에 대해서 아들 송 본부장은 일절 말을 보태지 않았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 김 대표가 아너 회원이 된 지 1년 후 아들인 그도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리며 제주 최초 모자 아너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어머니가 먼저 가입하신 영향도 있고, 힘든 시기가 지났으니 이제 나도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주 사랑의열매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한 (주)오현개발



“힘든 시기를 넘기고 나니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 (주)오현개발 송현울 총괄본부장

아내가 된 두 사람의 나눔 행보는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송현울 본부장의 모교, 그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기부하고, 희망2023나눔캠페인 제주 1호 법인 기부자로 참여하며 (주)오현개발은 제주 나눔명문기업 6호로 가입했다. 또 김순희 대표는 W아너 대외협력부장으로 활동하며 여성 아너의 활동 반경을 넓히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

송현울 본부장은 자신을 장학생으로 추천해 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선생님을 만났다.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알고 있다며 신문에서 기부 관련 기사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내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 최초 모자(母子) 아너인 (주)오현개발 송현울 총괄본부장과 김순희 대표이사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극구 사양하셨죠.” 예민한 사춘기 시절, 충분히 엇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건넨 따뜻한 격려는 송 본부장은 물론 어머니 김 대표에게까지 큰 위로이자 응원이 되었다. 두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아마도 좋은 어른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늦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지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나뭇가지

나 밧줄을 던져준다면 그걸 잡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나눈다는 건 늦에 빠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더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받은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김순희 대표와 송현울 총괄본부장.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어른으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한다. ❀

“그림도, 기부도 모두 제 꿈이었어요”

평생 소원해온 첫 개인전의 기쁨을 가까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도색 업무를 담당하는 최명선 씨다. 글 강은진 일러스트 조성을 사진 인천시 중구청

이웃과 나누는 작품 수익금

올해 1월, 인천시 중구청에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취약 계층 이웃들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한, 문화관광과에서 외관 도색 업무를 맡고 있는 최명선 씨가 그 주인공이다. 성금은 그가 평생 소원해온 첫 개인전의 수익금 일부로 마련해 더욱 빛을 발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부는 제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나이도 있고 하니 작품전 한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변에서 부추기기도 하고, 구청에서 대관료 없이 초대 작가로 후원도 해주셔서 전시회를 열게 된 게 기부라는 꿈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사실 최명선 씨는 인천 중구청 직원이기 이전에 평생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만화가 문하생으로 그림을 시작해 스크린 전성시대를 주름잡던 간판장이로,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며 간판 일을 그만둘 때까지

인천 인형극장 미술부장으로 2002년까지 일했다. 이후 중구청에서 송월동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월미관광특구 등의 작업을 맡아 그간 쌓은 노하우를 지역을 위해 다 쏟아부었다.

꿈꾸며살아가자고요!

최명선 씨는 전시 작품이 팔리니 기부 생각부터 나더라며 웃었다. 특히 아내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아내에게 내 뜻을 전하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바로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웃음) 아내는 오래전부터 성당에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나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평생 그림을 그리는 최명선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꿈꾸며 살아가라 조언한다.

최명선 씨는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신한다. 평생 그림을 그리며 배고픈 시절을 오래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돕고 싶었다.

“오랜 꿈이었던 기부를 하고 나니, 정말 행복해요. 잠깐 좋고 말 행복이 아니라 아주 오래 같은 행복이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요. 멀리 내다보고 곳곳이 참고 견디면, 끝내 좋은 날이 온다고, 난 평생 붓을 놓아본 적 없고, 큰돈 못 벌었지만, 내 힘으로 여태 일해 버니, 이게 행복이라고.”

나눔은 본능이라는 최명선 씨는 꿈꾸며 살아가자고 말했다.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말이다. 최명선 씨의 그림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윽하고 아름답게! 🍀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기부효능감을 잡고 JUMP UP!

지난 2월 15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사전 신청부터 많은 인원이 몰렸다는 후문.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자리를 뜬 이가 없을 정도로 열띤 분위기가 가득했던 컨퍼런스 현장을 공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사랑의열매
참고 자료 <2023 기부 트렌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1



2



3

1 행사에 앞서 축사를 하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2 사전 신청을 시작하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3 2월 15일에 개최한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 4 기부 트렌드 발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참석자 5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기부 트렌드 Talk Talk 진행 모습

우리 사회 나눔의 현주소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는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에서 한 해 동안 연구한 나눔 지수와 기부 트렌드를 발표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토대로 비영리 기관 종사자와 모금 실무자가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2022 한국의 나눔 지수'를 주제로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민 교수가 한국의 나눔 현황을 짚었고,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김소영 연구위원이 지역별 나눔 지수를 발표하며 지난해를 되돌아봤다.



4



5

기부자의 기부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2부에서는 '2023 기부 트렌드: 기부효능감을 잡고, JUMP UP!'이란 주제로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연구위원, 이노소셜랩 유승권 이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연희 교수가 개인 기부자, 기업 기부자, 모금 트렌드를 발표하며 기부와 나눔 흐름을 전망했다. 1부에서는 사회복지·모금 현장·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온·오프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끝으로 컨퍼런스가 마무리됐다. ♡

Check



2023년 개인 기부자 트렌드 살펴보기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2023년 기부 트렌드 주제로 '기부효능감을 잡고, JUMP UP!'을 제시했다. 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을 뜻하는 말이다.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부효능감이다. 연구진은 올해는 비영리 모금 조직이 기부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 **사회 속의 '나'를 생각하는 기부자** 2020년 경제 상황이 어려워 모금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모금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는 기부자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 특히 사회 속의 나를 생각하는 기부자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곧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2023년, 공생의 마음을 가진 기부자들이 있기에 언제나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부, 내 일상을 더욱 이롭게!** 최근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갯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생활)'이다. 기부 역시 갯생 트렌드에 올라탄 모습이다. 시민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성공에 따른 기부금을 모아 비영리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올해는 갯생과 함께 디깅(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행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기부자 성장의 힘! 재미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재미 요소는 기부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부할 의향이 없는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일시적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부자가 주도하고 기획한 모금 활동에서도 재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기획의 재미,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더해져 기부자들을 더욱 신나게 성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 **기부자 취향 시대 _ 취향으로 모이고 연대한다** 팬덤 기부는 취향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기부와 사회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또 특정 기관의 기부자라는 동질성이 있지만, 기부 이슈보다는 동일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확장해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취향을 중심으로 뭉치는 기부자 모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부효능감을 잡아라!** 기부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기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기부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기부효능감을 느끼면 기부 후 다음까지 고민하는 적극적 기부자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부자의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비영리 기관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다.

*출처 박미희·노연희·유승권·이수현, <2023 기부 트렌드>(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전하고 행복한 외식업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기업 (주)우아한형제들의 창업자 김봉진 의장은 온라인 배달 시장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주역이다.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꾼 김봉진 의장은 기부도 남달랐다.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그 시작으로 외식업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글 강보라
사진 (주)우아한형제들, 사랑의열매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1호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과 우아한형제들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으로
기부의 새 지평을 연
김봉진 의장의 기금
전달식 모습

배달 시장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등장 전후로 나뉘듯, 사랑의열매의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역시 김봉진 의장의 등장을 기점으로 갈린다.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김봉진 의장이 시작한 새로운 기부 제도다. 별도 재단을 설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기부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해 기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맞춤형 기금 사업이다. 재단 설립 인가나 별도의 운영 자금 없이 사랑의열매가 기부자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아한영향력순환기금'이라고 이름 붙인 1호 기금(50억 원)은 세 아이의 아버지 김봉진 의장의 뜻에 따라 저소득 학생 장학 사업에 사용했고, 배달 중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라이더들의 의료·생계비를 지원하는 3호 기금(20억 원)을 추가로 만들어 지원한 바 있으며, 이 기금엔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법인 기금 1억 원을 더해 총 21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김봉진 의장과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부터 외식 업주들과의 상생 협력까지 살피는 지원으로, 외식업 생태계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기부를 디자인하다

김봉진 의장은 한국인 최초로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서약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더기빙플레지는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셔웨이 회장이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 운동이다. 현재 28개국 236명이 더기빙플레지를 통해 기부 선언을 했으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기빙플레지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 기부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거치는데, 김봉진 의장 역시 수개월에 걸친 가입 절차 끝에 한국인 1호이며,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로 인정받았다. 회원은 본인의 관심사, 해결하고 싶은 이슈에 따라 향후 국내외 적합한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찾아 자유롭게 기부함으로써 선언을 이행할 수 있다. 김 의장은 기부 시행의 시작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과 외식업주·라이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어린 시절 식당의 손님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어려웠던 김 의장의 성장 환경과 배민 파트너인 외식업주 및 라이더와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김봉진 의장만의 기부 디자인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고치료비걱정족, 라이더 전용 의료비 지원

스마트폰이 일상에 스며들며 배달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성장으로 배달을 담당하는 라이더들의 사고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는 평균 보험료가 가정용 이륜차보다 10배 정도 비쌌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놓인 라이더가 많아 사고 이후 치료비는 물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현실을 잘 아는 김봉진 의장은 2019년 3월, 2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조성하고 배달 중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라이더에게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배달 라이더를 지원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으로 재기의 희망을 품은 라이더는 지금까지 총 193명(2022년 기준)으로 이들에게 총 18억 원을 지원했다. 이 기금은 외식업 배달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의료비(중위 소득 14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납부했다더라도 소급 적용하며 라이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지원받은 라이더들은 "지원 서류를 카톡 사진으로 보내 굉장히 편리했다"며 "서류 제출 후 불과 10일 만에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후기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에 집중해 재기할 수 있었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들에게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사장님 자녀 장학금으로 한 단계 점프해볼까?

김봉진 의장의 더기빙플레이시 시행은 200억 원 규모의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으로 이어졌다. 먼저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12호로 조성된 100억 원의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은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에 사용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외식업체를 운영하며 중위 소득 130% 이하인 외식업주의 고등학생, 국내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 자녀이다. 선정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는 각각 연간 학업 지원금 300만 원·40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 지원비 200만 원을 추가해 연간 600만 원을, 해외 대학(원)생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학생간 네트워킹, 우아한형제들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2022년 기준 장학생 319명에게 18억 원 지원). 나머지 100억 원은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치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을 위한 의료비와 생계



비 지원 목적으로 희망브리지와 함께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김봉진 의장은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며 "형편이 좋지 않은 외식업 사장님의 자녀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멀지만 한 꿈일 수 있다"며 "이런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 의장의 바람대로 장학금 지원은 내일을 향한 학생들의 도전에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자율성에 있다.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육비 외에 자기 계발, 문화·여가 생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다"거나 "여행과 뮤지컬 관람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후기부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부모님을 뵙고 왔다"는 해외 유학생 등 저마다 기쁜 사연으로 넘쳐났다.

우아한형제들만의 유쾌한 감성으로 함께 웃는 오늘

우아한형제들 특유의 유쾌한 감성은 지원 이벤트 곳곳에 녹아 있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장학금 신춘문에 콘테스트'로 특별한 즐거움을 더했다. 부모의 가게 이름 또는 가게 음식을 주제로 N행시 짓기를 진행한 것. 장원급제를 한 '고고통닭'의 자녀는 "고깃집 아들은 아니지만, 고놈 참 잘 컸대! 통닭 먹고 자란 아들내미 닭 말고 한우로 보답할게요"라는 센스 넘치는 사행시로 재미와 감동을 더하며 훈훈함을 안겨주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국내 장학생 가정 웰컴 선물로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망고와 부모를 위한 홍삼 세트를 배달하는 '아프지 망고 행복하자' 이벤트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망고 선물 세트로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하며 MZ세대와의 교감과 외식업을 운영하는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물을 전달했다.

김봉진 의장은 기부 서약서에서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의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을 강조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다. 김봉진 의장의 우직한 실행과 우아한형제들만의 유쾌한 감성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직된 기부 문화를 바꾸고 있다. 유쾌한 나눔을 실천하는 김봉진 의장과 우아한형제들의 행보가 우리 사회 곳곳에 가닿기를 바란다.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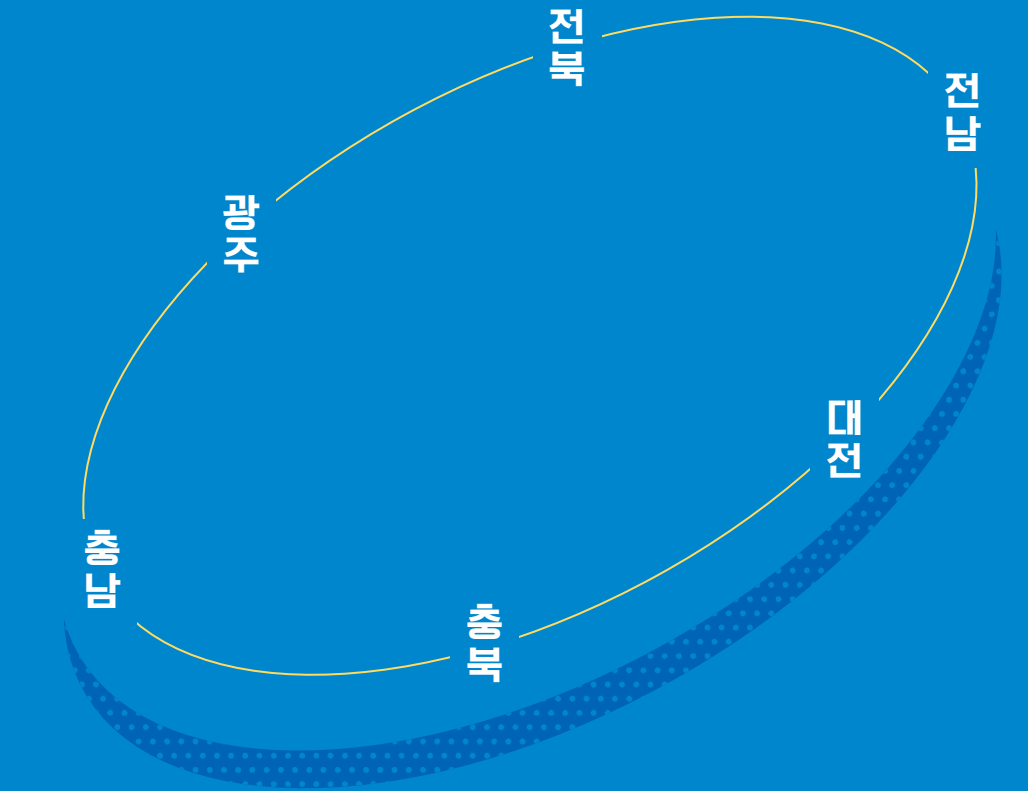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1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성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가 되어 더 이상 세계 여성의 날이 필요 없는 날을 기다려본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주)문장건설

(주)문장건설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 건설한 기업이다.
탄탄한 기업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광주 사랑의열매



(주)문장건설은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광주 사랑의열매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사진은 전달식에 함께한 광주 사랑의열매 박철홍 회장과 (주)문장건설 장치성 대표(왼쪽)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로

2001년에 설립한 (주)문장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지엔하임'으로 전국에 1만 세대 이상을 공급한 중견 건설업체다. "고객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치성 대표의 경영 방침에 따라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시공으로 믿을 수 있는 공사 품질을 구현한다. 또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문장건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사랑의열매에 3억 6,300여만 원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파킨슨병 환우 지원,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공연 티켓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치성 대표가 광주 아너 146호로 가입하는 등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보여주었다.

밝고 건강한 삶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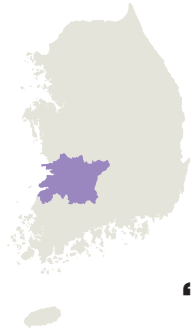
(주)문장건설은 특히 파킨슨병 환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16년 파킨슨병 환우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 (사)파킨슨행복센터 설립에 함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해 해당 성금을 파킨슨행복센터에 지원했으며, 지난 2월 9일에 다시 한번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파킨슨병 환우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해 10월에는 (사)파킨슨행복센터 주관으로 열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후원하며 환우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인식 개선을 돕기도 했다. 이 밖에 하나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며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



파킨슨행복센터에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주)문장건설

“파킨슨병 환우들이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자’는 창업 정신에 따라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문장건설 장치성 대표이사



결식아동 위해 경매 수익금 전액 기부 ‘나눔 장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8인

지난해 11월 10일 ‘사랑나눔 공예 옥션’이 진행됐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8인이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매 작품을 기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 김종연 민속목조각장, 김선에 지승장, 전북 사랑의열매 유병설 사무처장, 한국전통문화전당 김혜원 팀장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온정을 나누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이 온기가 결식아동에게 전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8호 김종연 민속목조각장

결식아동 지원에 뜻 모은 장인들

전북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결식아동에게 따뜻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나눔 공예 옥션’을 기획했다. 행사 취지에 공감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8인의 작품을 경매로 판매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한 것. 기부 작품은 무형문화재 제45호 윤규상 우산장의 지양산을 비롯해 총 8종으로, 모두 경매 시작가를 5만 원으로 맞췄다. 기부 목적의 행사인 만큼 많은 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정가보다 최대 80%를 낮췄다는 후문이다.

1시간 만에 작품 모두 낙찰

지난해 11월 10일, 온·오프라인 동시 경매로 진행된 행사는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모든 작품이 낙찰돼 뜨거운 열기를 가늠케 했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 108만 원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식아동 5인에게 전달했다. 이 덕분에 아동들은 겨울방학 동안 끼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 13일에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이번 사랑나눔 공예 옥션에 마음을 모아주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장인분들과 기부를 위해 경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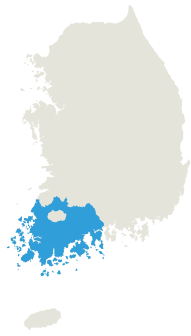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모든 작품이 낙찰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사랑나눔 공예 옥션 현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8인의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사랑나눔 공예 옥션

경매에 출품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의 공예품

- 제45호 윤규상 우산장의 지양산
- 제50호 최대규 전주나전장의 나전옷칠수저세트
- 제51호 이신입 전주낙죽장의 매화선
- 제43호 이종덕 방짜유기장의 유기작품접시
- 제58호 김종연 민속목조각장의 원앙세트
- 제10호 엄재수 선자장의 합죽선
- 제53호 안시성 부거리옹기장의 차항아리
- 제61호 김선에 지승장의 옷칠잔세트



나눔리더 가입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 장사의 나눔 이야기 “사랑의 잡채기 한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씨름단,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씨름 선수가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과 최정만 장사다. 따뜻한 기술이 만드는 나눔의 승리를 함께 맛보자. 글 강은진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최정만 장사(왼쪽)와 우승회 영암군수

“영암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특히 지역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 모습을 떠올리면 더없이 행복합니다.” - 최정만 장사

주특기로 승리할 때마다 나눔 적립

지난해 7월, 영암군민속씨름단 주장 최정만 장사가 전남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최정만 장사는 2020년 추석장사씨름대회부터 주특기인 잡채기 기술로 승리할 때마다 10만 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잡채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성금은 영암군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감독님의 나눔 보며 영감받아

사랑의 잡채기는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의 '사랑의 안다리'를 잇는 나눔 활동이다. 최정만 장사는 “감독님이 선수 시절 사랑의안다리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감독님처럼 영암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사랑의 잡채기로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역시 군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이웃 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창단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개인 통산 16회 우승에 빛나는 최정만 장사는 평소 바른 언행으로 늘 주변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선행 바탕, 통산 16회 우승까지 겹경사

최정만 장사는 2017년 영암군민속씨름단 창단 당시부터 꾸준히 높은 성적과 바른 언행으로 늘 주변 선수들의 귀감이 되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태 감독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최정만 장사가 대단히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씨름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만 장사는 이런 선행을 바탕으로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장사(90kg 이하)에 등극하며, 개인 통산 16번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세상에 빛을, 이웃에게 사랑을”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이웃사랑, 환경 사랑, 문화 사랑, 재난 구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이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다.

글 강은진 사진 대전사랑의열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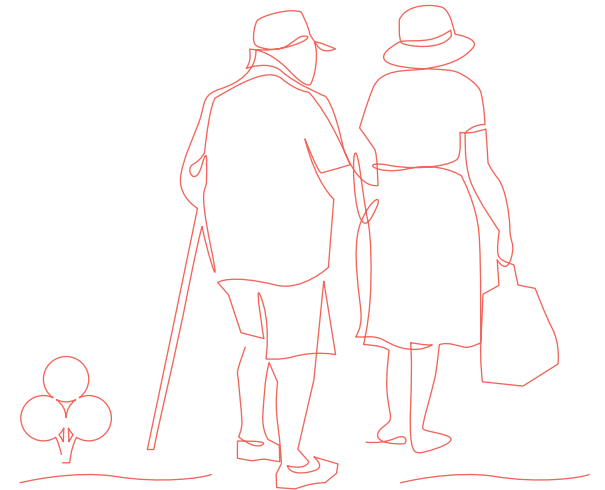


대전시 유성구 내 취약 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나들이 봉사 중인 전력연구원 임직원들

지속적 성금 전달로 안정적 지원 이어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원장 이중호)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 후원으로 안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2006년부터 유성구청과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생계가 어렵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총 10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또 무료 급식소에 식자재 구매 비용을, 어린이재단에 치료비와 생계비를 후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도 매달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연구원은 지난해 4월 1,400여만 원, 올해 1월 500만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력연구원 이중호 원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렵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직접 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성금 지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이다. 전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노인복지관과 함께 유성구 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또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공익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 관련 수업과 신재생에너지 키트 실습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세상에 빛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1961년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출범해 1993년 대덕연구단지에 등지를 튼 한국전력공사 부설 연구소로,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전기 품질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임직원의 마음이 소중히 전달되어
그분들 삶에 희망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이중호 원장



착한일터 가입부터 나눔캠페인 성금까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의 중단 없는 이웃사랑

임직원의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는 일터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다. 봉사단 발족부터 착한일터 가입,
나눔캠페인 성금 쾌척까지 멈춤 없는 이웃사랑의 힘을 느껴보자.

글 강은진 사진 충북사랑의열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센터장 김승희) 임직원은 착한일터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이웃 돕기 성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멈춤 없는 이웃사랑, 큰 귀감

지역사회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이하 충북영업센터)의 꾸준한 나눔이 이웃들의 마음을 따스한 온기로 물들이고 있다. 먼저 충북영업센터는 4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봉사하는 '행복나눔봉사단'을 발족하는 한편, 착한일터에도 가입해 매달 정기적인 급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일터는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직장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충북영업센터는 지난해 9월 착한일터에 가입하면서 연간 약 1,2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충북 도내 홀몸 어르신, 저소득 취약 계층, 소규모 복지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열린 가입식에서 충북 지역 홀몸 어르신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450만 원을 함께 전달해 감동을 더했다.



착한일터 가입식에 참석한 김승희 충북영업센터장(왼쪽)과 충북 사랑의열매 노영수 회장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 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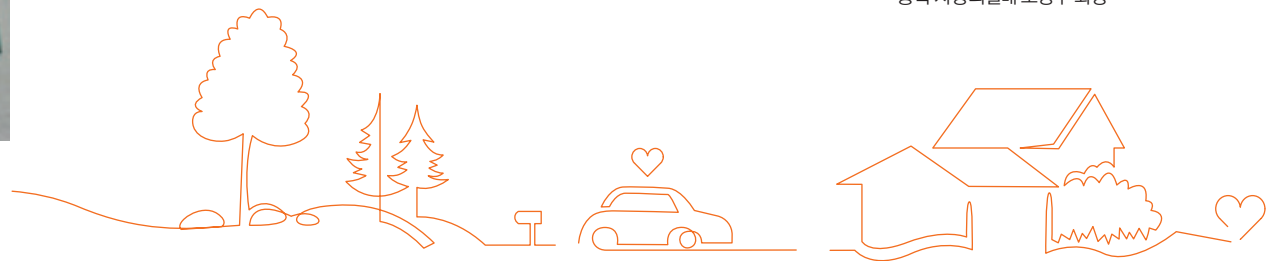
충북영업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미혼모 가정과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일터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 53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또 올해 1월에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착한일터 급여 나눔으로 모은 성금 1,100만 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에 동참했다. 한국도로공사 김승희 충북영업센터장은 "직원들이 급여 나눔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충북영업센터는 기부뿐 아니라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봉사를 병행하며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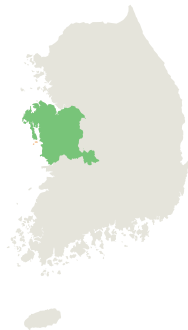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착한일터에 가입한 만큼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김승희 충북영업센터장

“착한일터를 통한 직장인들의 소중한 급여 나눔이 충북 도내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충북 사랑의열매 노영수 회장





기부와 봉사에도 앞장서는 충청남도 배분 기관 사람들

“모두가 함께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나눔이죠”

도움을 주는 이와 도움을 받는 이의 경계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웃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너와 나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말이다. 충청남도 배분 기관 사람들의 진심이다.

글강은진 사진충남 사랑의열매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김성완 회장에게 나눔리더 인증패를 전달한 모습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눔 선순환의 필요성을
느껴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김성완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장, 나눔리더 가입

충청남도 배분 기관 소속 사람들이 나눔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김성완 회장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앞서 김성완 회장은 지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도 충남 지역의 소외된 농학생들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김성완 회장은 “충남의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연한 듯 즐기던 커피 한 잔을 줄이고 성금을 모았다”면서 “일상에서 절약하며 모은 마음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가닿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복지사도 나눔 동참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나눔도 이어졌다. 28년째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힘써온 충남 나눔리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화 사무국장이 대표적이다. 16년 동안 무려 200차례 가까이 기부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미화 사무국장은 “평소 장애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변 이웃들의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더는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눔 독려까지 잊지 않아

장미화 사무국장은 “큰돈이 아닌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이라도 기부하며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나눔을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밖에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이성호 부장,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과 지승훈 교수 등 지역사회 복지 현장의 많은 일꾼이 나눔리더 가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나눔을 보여주는 충청남도 배분 기관 사람들 소식에 마음이 훈훈해진다. ❀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충남 나눔리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화(왼쪽) 사무국장과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과 지승훈 교수

“우리 이웃을 위해 복지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종사자분의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충남 사랑의열매 정희영 사무처장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065호(강원 100호)



신정예 강릉 상원전기 이상욱 대표의 아내

"코로나19 여파와 높은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모여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국 3071호(전북 93호)



김중원 우진건설(주) 대표이사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국 3073호(서울 371호)



박보람 메뉴하(MENUHA) 대표

"저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며, 더 큰 꿈과 희망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전국 3074호(서울 372호)



박보연 디에이치아이두산 대표

"나눔이란 스스로를 향기롭게 하는 일이자, 주변과 사회가 향기로워지는 일입니다."

전국 3075호(서울 373호)



박세준 ODEN 대표

"나눔은 실천하기 어렵지만, 막상 행한 뒤에는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전국 3084호(서울 374호)



홍수정 아산유외과 원장

"나눔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에너지입니다."

전국 3085호(서울 375호)



고은희 인트로맨(주) 대표

"나눔은 행복입니다. 나눔으로 내가 더 보람차고 행복해집니다."

전국 3089호(전북 94호)



김보라 우진문화재단 이사장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전국 3094호(강원 102호)



진기철 중부자동차서비스(주) 대표

"앞으로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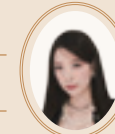
전국 3098호(제주 136호)



김충남 신제주농장 대표

"나눔은 세상을 구성하는 톱니바퀴입니다."

전국 3100호(중앙회 370호)



권보아 SM엔터테인먼트 가수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언제나 꿈을 잃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101호(서울 376호)



김태수 강남복지재단 이사

"나눔은 나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봉사는 나의 영혼까지 살아나게 합니다."

전국 3103호(서울 377호)



이경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부교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눔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전국 3105호(부산 313호)



강명원

"나눔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전국 3109호(서울 379호)



구자관 (주)삼구INC 책임대표사원

"나눔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이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전국 3115호(광주 153호)



조성래 (유)DRC 총원건설 회장

"앞으로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116호(광주 154호)



김은숙

"나눔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전국 3117호(대전 105호)



박도현(바이퍼) 한화생명 e스포츠 프로게이머

"나눔은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경기 최옥희 에치케이테크 대표, 원성재 운수산업개발(주) 비마토건 대표, 황은주 (주)티오피퍼니처 대표이사

중앙회

제너시스BBQ,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특별 모금 동참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에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제너시스BBQ의 성금은 임시 보호소에 필요한 식량 키트·텐트·담요 등 보호용품 지원 및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홍근 회장은 “유례없는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히 피해를 복구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8년부터 아프리카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 공헌 활동 ‘아이 러브 아프리카’를 펼쳐왔다. 또 ‘치킨대학 착한기부’로 신규 마명점주가 교육을 받으며 조리한 치킨을 인근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진 피해 이재민에 온정 나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전달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신동혁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임직원 30여 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에서도 모금을 진행하고, 각 지역 구호단체를 통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혁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는 6·25전쟁 발발 당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군대를 파병해준 우리의 형제국”이라며 “지진 피해로 인한 튀르키예 국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 NGO로서, 산하에 지구촌재난구조단을 운영하며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과 모금을 펼치고 있다.

서울

후라이드참잘하는집, 착한가게 동참



치킨 프랜차이즈 후라이드참잘하는집이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월 2일 열린 가입식에서 현판을 전달했다. 가입식에 참석한 후라이드참잘하는집 관계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며 “가맹점의 소중한 성금으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KCFA),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쾌척



지난 2월 3일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회장 김응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6,0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지원했다. 김응규 회장은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다스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산

2023년 복권기금 사업 전달식 진행



부산 사랑의열매가 2023년 복권기금 사업 전달식을 진행하고, 복지 기관 19개소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의 학습 지도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야간 보호 사업 수행 기관 18개소에 7억 8,334만 9,810원, 재학대 예방을 위한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수행 기관 1개소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다.

부산 10개 기업, 지진 피해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에 희망 전달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부산 지역 10개 기업이 뜻을 모아 총 2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세운철강(주), (주)강림CSP, 은산해운항공(주), 송우산업(주), (주)와이씨텍, (주)웨이브파크, (주)디알종합건설, (주)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주)협성종합건설, 선보공업(주) 10개 기업의 성금은 구호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

대구텍(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대구텍(유)(대표이사 한현준)가 대구 사랑의열매, 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와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텍(유)은 2006년부터 달서 지역 저소득층 약 200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중이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2억 4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현준 대표이사는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호·서현정 우창테크 대표 부부, 올해 첫 대구 나눔리더



우창테크 대표인 강동호·서현정 부부가 2023년 첫 번째 대구 부부 나눔리더로 이름을 올렸다. 평소 모교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온 강동호 대표는 2016년부터 대구 사랑의열매에 매월 기부하고 있으며, 서현정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하는 등 부부가 나란히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

동구농아인쉼터, 한국수어의 날 기념 성금 기탁



광주광역시 동구농아인쉼터(지회장 조점래)가 지난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기념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탁했다. 2022년 9월 문을 연 동구농아인쉼터 임직원들은 개소일부터 현재까지 쉼터를 이용하는 이들과 함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광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시작



광주 사랑의열매가 2022년 11월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와 대학생 홍보대사 협약을 맺고 지난 2월 제1기 홍보대사 첫 소집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11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는 기부금 전달식 행사, 배분 행사, 연한 모금 프로젝트, SNS 활동, 봉사 활동 등 광주 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천

가수 김기태 팬 카페,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가수 김기태의 팬 카페 ‘말해줄래’가 성금 1,000만 원을 기부를 약속하고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가입식에서 말해줄래는 1월 실시한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보육원 아동 및 미혼모,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생계비 지원에 써달라며 기부했다. 한 회원은 “김기태 가수의 마음을 닮고자 함께 모은 사랑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EAGON), 지진 피해 지원 성금 1억 원 전달



종합 건축자재 전문 기업 이건(EAGON)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특별 모금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이건 계열사인 (주)이건창호, 이건산업(주), (주)이건홀딩스, (주)이건그린텍, 이건에너지(주) 다섯 곳의 사내 기금을 모아 마련했다. 이건 안기명 부회장은 “우리의 마음이며 여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대전광역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추천 장학금 전달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제35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전광역시약사위원회(회장 박경화)가 추천한 장학금 10명에게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박경화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35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게이머 박도현 선수, 아너가입으로 선행 이어가



한화생명 e스포츠 소속 프로게이머 ‘바이퍼’ 박도현 선수가 대전 105호 아너로 가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어머니를 통해 조용히 기부를 실천해온 그는 아너 가입을 계기로 본인의 기부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도현 선수는 “많은분의 응원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계속 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울산

S-OIL(주),
성금 16억 원 통큰 나눔



S-OIL(주)가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16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울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쌀·난방유 지원, 저소득 장애인·노인·청소년 지원,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쓸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후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주)노사,
신년맞이 사회 공헌기금 전달



현대자동차(주) 노사가 울산 지역에 신년맞이 성금 12억 8,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임직원 평일 봉사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 계층 지원, 울산 대학생-지역아동교육 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H-점프스쿨' 장학금,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재활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주)삼표산업양주사업소,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나눔 실천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대표이사 김선배)가 1억 원을 기탁하며 경기북부 11호이자 양주시 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양주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선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주)긴자료코,
올해 첫 착한가게 단체 가입



돈가스 프랜차이즈 브랜드 (주)긴자료코(공동대표 원일호·김인교)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 (주)긴자료코 본점(홍대점), 연희 직영점, 강남 본점 세 곳이 가입했으며, 가입식은 (주)긴자료코 본사에서 진행했다. 원일호·김인교 공동대표는 “나눔에 앞장서는 돈가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회 공헌 성금과 임직원 봉급 끝잔 모금액 등을 더해 마련한 성금은 경기도 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세용 사장은 “앞으로 임직원 외에 일반인과 함께하는 동참형 사회 공헌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지원 사업에
7억 6,000여만 원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가 경제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여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동절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7억 6,000여만 원을 배분했다. 2022년 10월부터 경기남부 지역 5,500여 가구에 난방비·난방용품·연탄·기초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다 건강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원

안신경정신과 안동성 원장,
강원 86호 나눔리더 가입



지난 1월 30일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에 위치한 안신경정신과 안동성 원장이 2023년 첫 번째 강원 나눔리더로 가입해 인증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강원 86호 나눔리더가 된 안동성 원장의 성금 300만 원은 춘천시 관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소중한 성금을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100호 아너 탄생



지난 2011년 강원 1호 아너 이후 12년 만에 강원 사랑의열매 100호 아너 회원이 탄생했다. 강원 6호 아너 회원인 강릉 상원전기 이상욱 대표의 아내 신정에 씨가 주인공이다. 신정에 씨의 가입으로 두 사람은 강원 7호 부부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신정에 씨는 “남편을 보며 큰 결심을 했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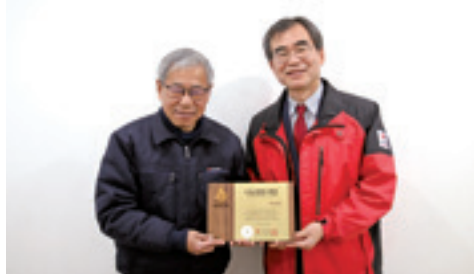
충북

충북낙농농협,
500만 원 상당 국내산 치즈 나눔



충북낙농농협(조합장 오중권)이 사회 공헌 활동 '나눔 축산 운동'을 실시하고, 50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치즈를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치즈는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국내산 1등급 원유를 사용해 충북낙농농협이 만든 제품이다. 오중권 조합장은 "최고 품질의 치즈로 이웃에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주)세림, 충북 4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충북 사랑의열매가 충북 4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주)세림을 방문해 인증패를 전달했다. (주)세림은 2018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 기탁해 지금까지 누적 1억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세림 송민희 전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
착한일터 가입



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점장 최학목)이 전북 사랑의열매 2023년 첫 번째 착한일터로 가입했다. 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 임직원은 매월 정기 기부를 약속했으며, 모든 계산대에 모금함을 설치해 성금을 모을 계획이다. 최학목 점장은 "임직원과 함께 지역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단체 가입으로
착한가게 4100호 돌파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 소속 한의원 16개소가 착한의원원으로 단체 가입해 전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가 4100호를 돌파했다. 양선호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매월 기부에 동참하기로 한 따뜻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금산공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이수일)가 지난 2월 8일 제원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로당 운영 지원금 2,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로당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금은 제원면 경로당 35개소에 각각 60만 원씩 전달했다.

보령시공직자,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위해 힘모아



보령시(시장 김동일) 공직자 1,230명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2월 13일~16일까지 모금한 성금 1,930만 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한 것.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 공직자들의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전남·광주 축협 조합장 일동,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지난 2월 14일 전남·광주 축협 조합장 일동이 최근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전남광주축협운영협의회 이성기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도움을 주고자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전했다.

금호피앤비화학(주),
이웃사랑 성금 기탁



금호피앤비화학(주)(대표 신우성)이 이웃사랑 성금 2,64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금호피앤비화학(주)과 임직원이 매월 110만 원씩 일대일 매칭 기부로 마련했으며, 여주시 관내 저소득 세대 아동 및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자성 총괄공장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나눔에 동참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

설 명절 지원 사업에
15억 원 배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북 사랑의열매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에 설 명절 지원금 15억 원을 배분했다. 이번 지원금은 도민과 기업이 기부한 성금으로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내 모든 시군의 홀몸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1만 5,000여 가구에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청도군, '2023년 쓰담쓰담
가치마켓' 수익금 전달



청도군이 지난 2월 11일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하는 '쓰담쓰담 가치마켓'을 진행했다. '돈을 쓰고 가치를 담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플래마켓 행사는 청도군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청도군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 원과 먹거리 판매 수익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

제주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 연합 동문,
제주 간담회 진행



사랑의열매 모금아카데미 연합 동문 일동이 지난 2월 7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주 간담회를 실시했다. 2019년 시작한 모금아카데미는 비영리 섹터 중간 관리자와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모금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금아카데미 수료자들의 성과와 고충을 토론했고, 모금아카데미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착한가게나눔봉사단,
착한가게 거리 홍보



제주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이 지난 2월 20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착한가게 거리 홍보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노형동 일대 상가를 방문해 착한가게를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했다. 홍보 후에는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게나눔봉사단 임원 회의를 열고 올해 봉사 활동 및 주요 행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주)현대정밀 길옥장학회,
제2기 장학금 수여식



경남 1호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으로 조성한 (주)현대정밀 길옥장학회가 제2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경상남도 내 예비 대학생 20명으로, 한 명당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현대정밀 오춘길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 지원 성금 보낸
익명의나눔 천사



지난 2월 13일 익명의 기부자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손 편지와 함께 경남 사랑의열매에 두고 갔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매년 연말 캠페인과 산불 및 호우 피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 등 국내외에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익명으로 성금을 보내오고 있으며, 누적액은 5억 4,800여만 원에 달한다.

세종

2023년 신청사업
전달식 진행



세종 사랑의열매가 지난 1월 26일 2023년 신청사업 선정 기관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분금을 전달하고 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신청사업은 1월부터 12월 까지 1년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 환경에 적극 개입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국세청 사회봉사단,
보육원에 따뜻한 마음 전해



국세청 사회봉사단이 지난 2월 13일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국세청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 나눔 2023년 사회복지시설 환경 미화 봉사 활동 및 성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무선 청소기 2대와 100만 원 상당의 화장지 등 생필품,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보육원 곳곳을 청소하고 아동들과 미니 탁구 시합을 해 참여 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했다.

동생/이상한 1화 누나/이상해

이상한 이상해씨



♪ 이상한 남매, 이상한과 이상해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해요 #일상나눔

사랑의열매는 2023년 일상 속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매달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챌린지 3개를 진행합니다. 3개 모두 달성한 <사랑의열매> 독자에게는 사랑의열매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눔 챌린지 참여방법

- 1 3개 챌린지를 모두 완료하고 인증샷을 찍는다.
 - 2 20일까지 사랑의열매에 이메일을 보낸다.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 * 3개 챌린지를 모두 인증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